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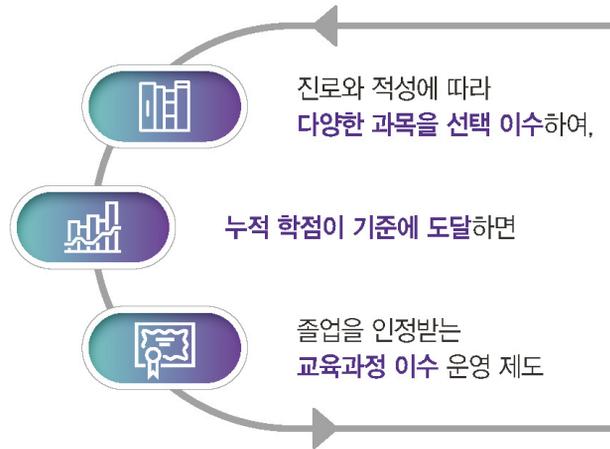
학업 성취율 판단 근거로서 국어과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

국어과는 총괄로 노은희(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개발진으로 김잔디(창덕여고), 김창원(경인교대), 김혜정(경북대), 민병곤(서울대), 박인규(인천포스코고), 서수현(광주교대), 장창중(청원여고) / 검토진으로 김향연(인천 부광고), 문장혁(인천 해양과학고), 박의용(서울 계성고), 송여주(안양 경기글로벌 통상고), 신현암(서울 송의여고), 안혁(서울중앙여고), 이경숙(김포 풍무고), 이기봉(경기 청심국제고), 이정훈(서울 청원고), 조인태(서울 현대고) 등이 참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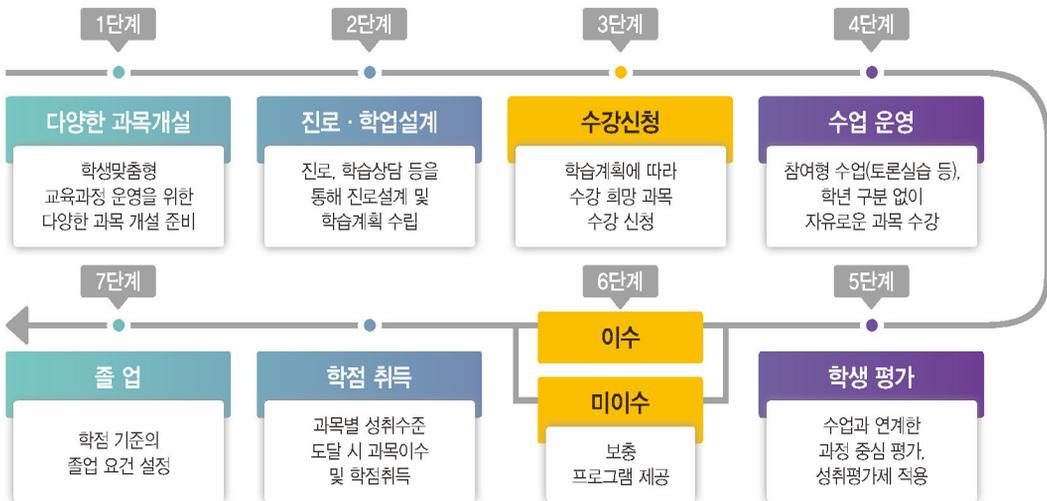
본 내용은 2019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행한 '교과학점제 도입에 따른 고등학교 교과 이수 기준 설정 방안 탐색'(노은희, 이광우, 김진숙, 신향수, 변희현, 주형미, 김영은, 지영래, 연구보고 RRC 2019-3)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전체 연구의 자세한 내용은 www.kice.re.kr(자료마당 → 연구보고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1 고교학점제에서의 교과 이수 기준 안내

▶ 고교학점제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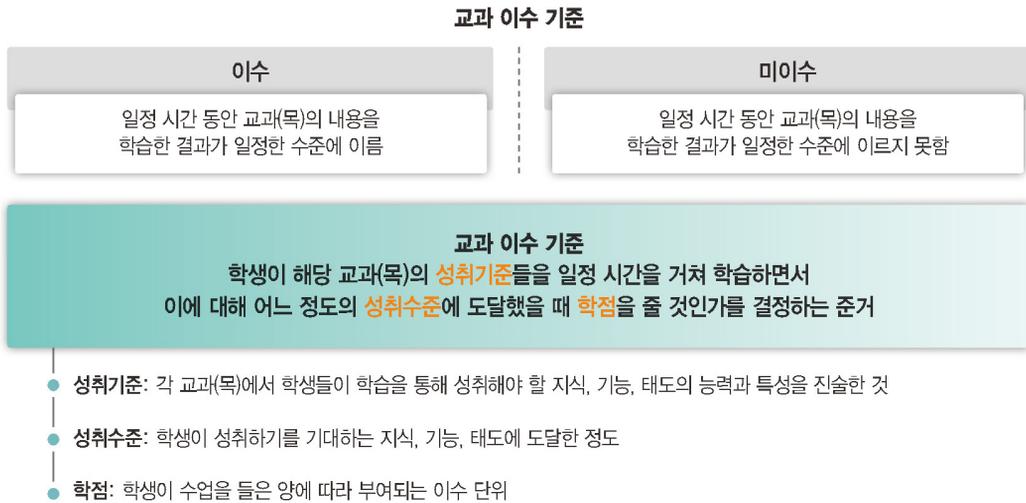


▶ 고교학점제의 운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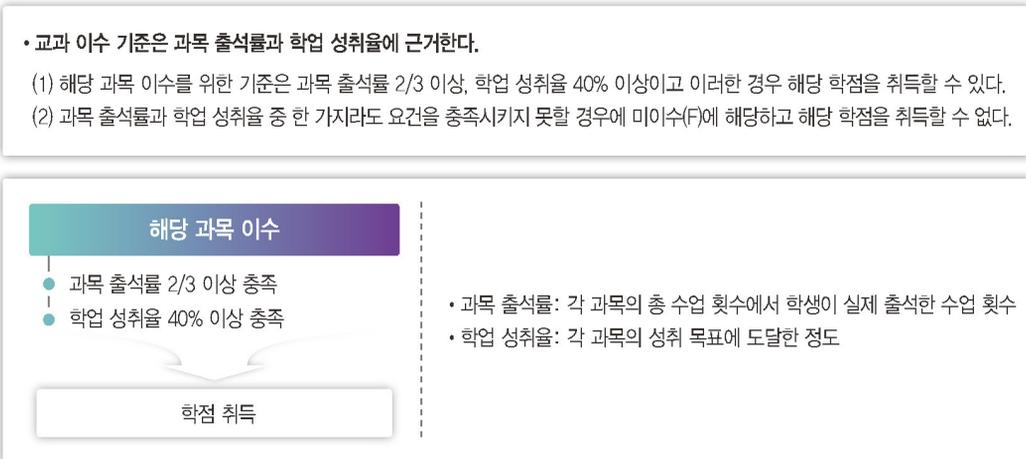


▶ 교과 이수 기준의 의미

- 교과 이수 기준은 해당 교과(목)의 이수와 미이수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고교학점제에서는 이러한 교과 이수 기준에 따라 이수로 판정이 되면 해당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음.



▶ 교과 이수 기준(안)



▶ 교과 이수 기준 설정에 따른 교과 성취율 및 성취도(안)

- 현행 성취평가제를 토대로 할 때, 현행 60% 미만인 E 수준에서 하한선을 40%로 두어 40% 이상~60% 미만으로 재설정하여 이 수준까지 최소 학업 성취수준을 달성한 ‘이수’로 판정함.

성취율	성취도	
90% 이상	A	
80% 이상 ~ 90% 미만	B	
70% 이상 ~ 80% 미만	C	
60% 이상 ~ 7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최소 학업 성취수준)	↑ 이수
40% 미만	F(미이수)	↓ 미이수

▶ 학업 성취율 판단 근거로서 최소 학업 성취수준 개발

- 최소 학업 성취수준은 교육 목표에 비추어 학생이 알아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것의 내용과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시한 성취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말함.
- 최소 학업 성취수준은 크게 성취율 범위와 이에 대응하는 성취수준 진술문으로 구성되는데, 성취율 범위는 40% 이상~60% 미만으로 교과 공통으로 설정한 바, 이에 해당하는 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진술한 성취수준 진술문을 개발하여 교사에게 안내해 줄 필요가 있음.

▶ 교과 공통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 개발 방향

- 교과(목)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근거한다. 성취기준은 각 교과(목)에서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성취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의 능력과 특성을 진술한 것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의 실질적인 근거로 교사가 무엇을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지, 학생이 무엇을 공부하고 성취해야 하는지에 관한 실질적인 지침이 된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지식, 기능, 태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였으므로 성취기준을 근거로 할 경우 핵심역량의 성취 정도도 반영할 수 있다.
- 교과(목)에서 기대하는 최소한의 능력 정도를 담아야 한다. 다만, 최소한의 능력이더라도 학업 성취에 대한 교과 이수의 판정 근거가 되므로, 교과(목)에서 기대하는 적절한 정도의 능력은 담보할 필요가 있다.

- 현행 성취평가제 E 수준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고교학점제는 현행 성취평가제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최소 학업 성취수준 설정은 이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 즉, 현행 성취평가제에서 최저의 성취수준으로 설정한 E 수준 범위에서 새롭게 최소 학업 성취 수준의 범위를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학생의 능력 특성을 기술해야 한다.

▶ 교과 공통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 개발 단계



- ① 문헌 분석 단계 : 최소 학업 성취수준에 대한 진술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근거해야 하므로 2015 개정 교육과정 문서와 이에 따른 교과별 평가기준과 단원/영역별 성취 수준이 수록된 보고서를 분석함. 또한 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외의 최소 학업 성취 수준 진술문의 제시 방식 등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② 교과 개발 방향 수립 단계 : 교과 간 공유해야 할 공통적인 개발 원리를 개발하고 교과 별로 개발할 대상 과목을 선정함. 이때 세부적으로는 개발 단위, 진술 항목 및 표현 방식 정도 등을 교과 간 공유하고 공통적으로 참조해야 할 지침도 마련함.
- ③ 최소 학업 성취수준 개발 단계 : 각 교과별로 교과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 초안을 개발하면서 교과 간 공유해야 할 사안을 조율해 나감.
- ④ 현장 적합성 검토 단계 : 각 교과별로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검토단을 구성하여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 초안에 대한 현장 적합성 검토를 실시함. 현장 적합성 검토를 받기 위해 사전에 모든 검토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여 고교학점제에서 최소 학업 성취수준의 의미와 기능, 개발 방향과 의도, 검토 항목과 방법을 공유함. 이는

검토의 눈높이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한 과정임. 워크숍 이후 검토자들은 개발된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이 판단 근거 자료로서 적합한가를 검토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함. 이후 교과 전문가 패널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을 수정함.

- ⑤ 전문가 타당성 검토 단계 : 현장 적합성 검토에 따라 수정된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에 대해 다시 교육 전문가들로부터 타당성을 점검 받음.
- ⑥ 최종안 개발 단계 : 교과 전문가 패널이 교육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된 검토 의견 및 수정 방향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을 확정함.

▶ 교과 공통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 개발 지침

교과별 개발 단위에 따른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은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수행 활동/판단 근거’ 등으로 구성된다. 단위/영역별 성취수준이 ‘일반적 특성’만을 진술한 것에 비해, 이수과 미이수를 판정하는 근거 자료로서 최소 학업 성취수준은 교사의 판단을 도울 수 있도록, 일반적 특성을 하위 항목으로 나누고 이에 대한 ‘수행 활동/판단 근거’를 구체화하였다.

단위/영역/ 핵심 개념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수행 활동 / 판단 근거
		①	.
		②	. .
		③	. . .
		⋮	

- ① 단위/영역/핵심 개념 : 교과(목)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의 개발 단위를 결정한다.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성취평가제에 근거하여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을 개발하므로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의 개발 단위를 준용하고자 한다.¹⁾ 즉,

1) 교과별 평가기준은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2015개정교육과정→평가기준)에서 찾을 수 있음.

최소 학업 성취수준의 개발 단위는 각 교과에서 설정한 단위/영역별 성취수준을 진술한 단위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② 일반적 특성 :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은 현행 단위/영역별 성취수준 E(60% 미만)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한다. 이때, 단위 또는 영역에 포함된 성취기준의 평가기준 '하'와 단위/영역별 성취수준 E(60% 미만)를 재검토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성취수준 E(40% 이상~60% 미만)의 일반적 특성으로 적합한지 살피고 필요 시 새롭게 진술한다.
- ③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 새로 설정한 단위/영역별 성취수준 E(40% 이상~60% 미만)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진술문을 하위 항목으로 나눈다. 이는 일반적 특성의 진술문이 보통 포괄적이어서 교사가 이를 통해 학생의 성취수준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하위 항목으로 나누어 그 판단 근거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하위 항목으로 나누는 기준은 교과별 특성을 반영하여 정하며 단위/영역에 포함된 핵심적인 성취기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 ④ 수행 활동/판단 근거 : 세분화된 하위 항목 특성별로 성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행 활동/판단 근거를 구체화하여 제시한다. 수행 활동/판단 근거는 40% 이상~60% 미만의 능력을 지닌 학생들이 보여줄 만한 전형적인 모습을 가급적 구체적인 양상으로 진술함으로써, 교사가 이를 통해 그 수준 차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 시범 개발 과목

- 고교학점제의 학교 현장 적용을 목적으로, 우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의 5개 교과 10개 과목에 대해 시범적으로 최소 학업 성취수준을 마련함. 교과별로 공통 과목 1개와 선택 비율이 높은 일반 선택 과목 1개로 한정하여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을 개발하여 제시함.

교과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개발 과목	공통 과목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일반 선택 과목	독서	수학 I	독해와 작문	사회·문화	물리학 I

02

국어과 최소 학업 성취수준(안) 개발

국어과의 경우 공통 과목 <국어>, 일반 선택 과목 <독서> 2과목에 대해, 교과 이수 기준의 판정 근거로서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을 개발하였다.

가. 공통 과목 <국어>

공통 과목 <국어>는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총 5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듣기·말하기 영역은 6개 성취기준, 읽기 영역은 5개 성취기준, 쓰기 영역은 5개 성취기준, 문법 영역은 5개 성취기준, 문학 영역은 5개의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총 26개의 성취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2015 교육과정 개정 시 이러한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26개 성취기준의 평가기준과 영역별 성취수준을 개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성취평가제에 따른 평가를 실행하였다. 마찬가지로 고교학점제는 이러한 성취평가제에 기반하여 운영되므로, 본 연구의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도 이를 토대로 개발하였다.

(1) 듣기·말하기 영역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고등학교 국어과)에서 제시된 듣기·말하기 영역 성취기준의 평가기준 ‘하’를 재검토한 결과, 평가기준의 기술이 적정하여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고등학교 국어과)의 듣기·말하기 영역 성취수준 ‘E’를 재검토한 결과, 6개의 성취기준을 3가지로 종합하여 일반적 특성을 구성하였고, 기술 내용에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단, 다음 두 가지는 수정을 요한다. 첫째, ‘상호 교섭하며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은 10학년 과정에서 듣기·말하기의 사회 문화성을 포함하기 위하여 ‘화자와 청자가 상호 교섭하며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언어 공동체의 관습’은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으로 수정하는 것이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취지에 맞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듣기·말하기 영역에서 새로 설정한 성취수준 ‘E’에 대해 다시 ‘하위 항목’으로 나누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활동 또는 근거(‘수행 활동/판단 근거’)의 세부 내용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수행 활동/판단 근거는 교사의 현장 적합성 검토와 전문가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

하였다. <표 1>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듣기·말하기 영역의 최소 학업 성취수준 (E, 40% 이상 60% 미만) 진술문이다.

표 1 공통 과목 <국어> 듣기·말하기 영역의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

영역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수행 활동 / 판단 근거
듣기·말하기	듣기·말하기가 화자와 청자가 상호 교섭하며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임을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의사소통의 목적, 상황, 매체에 따른 담화 유형 중 일부 유형에서 소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 역할을 보인다. 또한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성찰하는 데 관심을 보인다. ²⁾	① 듣기·말하기가 화자와 청자가 상호 교섭하며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임을 대략적으로 이해한다.	•듣기·말하기의 과정이 개인이나 집단 상호 간에 다양성을 인정하며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대략적으로 안다.
		② 의사소통의 목적, 상황, 매체에 따른 담화 유형 중 일부 유형에서 소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 역할을 보인다.	•대화, 토론, 협상 중 일부 유형에 참여하여 소통한다.
		③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에 대해 성찰하는 데 관심을 보인다.	•자신이 속한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듣기·말하기 영역에서 새로 설정한 성취수준 ‘E’에 대해 <표 1>과 같이 3개의 ‘하위 항목’으로 나누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3개의 활동 또는 근거(‘수행 활동/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하위 항목은 지식 이해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화자와 청자가 상호 교섭하며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은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진술이어서 이를 기초로 교사가 학생의 지식 이해 수준을 판단하기에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설정 취지와 현장 적합성 검토 의견을 살펴, 이는 ‘•듣기·말하기의 과정이 개인이나 집단 상호 간에 다양성을 인정하며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대략적으로 안다’는 수행 활동을 확인하면 어느 정도 최소 학업 성취수준을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두 번째 하위 항목은 기능 범주에 해당하는데, ‘의사소통의 목적, 상황, 매체에 따른 담화 유형 중 일부 유형에서 소통’한다는 진술이 담화 유형을 특정하기 어려워져 이를 어느 정도 제약해 줄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고등학교의 기초적 수준에서 요구하는 ‘대화, 토론, 협상’으로 구체적인 담화 유형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하위 항목은 태도 범주에 해당하는데,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에 대해 성찰’하는 다소 고차적인 국어 능력을 담고 있다. 따라서 최소 학업 성취수준을 염두에 두고 언어 공동체 가운데 학생 ‘자신이 속한 언어 공동체’로 그 범위를 제약하고 ‘담화 관습의 성찰’이라는 고차적인 능력보다는 ‘담화 관습을 이해’하려는 태도 정도로 그 수준을 낮추어 설정하였다.

2)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고등학교 국어과)에서 재진술 사항은 밑줄 표시하였다.

(2) 읽기 영역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고등학교 국어과)에서 제시된 읽기 영역 성취기준의 평가기준 ‘하’를 재검토한 결과, 평가기준의 기술이 적정하여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고등학교 국어과)의 읽기 영역 성취수준 ‘E’를 재검토한 결과, 5개의 성취기준을 3가지로 종합하여 일반적 특성을 구성하였고, 기술 내용에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전반적인 내용은 유지하되, 일부 표현을 수정하였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삶의 문제와 연결 짓기’, ‘필자의 생각에 대해 다른 방안 떠올리기’는 창의적 읽기 활동에 해당하고,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 판단하기’는 비판적 읽기 활동에 해당한다. 최소 학업 성취수준 ‘E’의 속성을 고려하여, 세 가지 활동에 동일한 비중을 두고 활동의 선택 가능성을 명시하고자 ‘떠올리며’를 ‘떠올리거나’로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반복되는 표현을 운문하여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은 ‘필자의 관점 혹은 표현 방법’으로 수정하였다.

읽기 영역에서 새로 설정한 성취수준 ‘E’에 대해 다시 ‘하위 항목’으로 나누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활동 또는 근거(‘수행 활동/판단 근거’)의 세부 내용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수행 활동/판단 근거는 교사의 현장 적합성 검토와 전문가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 <표 2>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읽기 영역의 최소 학업 성취수준(E, 40% 이상 60% 미만) 진술문이다.

표 2 공통 과목 <국어> 읽기 영역의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

영역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수행 활동 / 판단 근거
읽기	기초적인 수준에서 읽기가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삶의 문제와 연결 짓거나 필자의 생각에 대해 다른 방안을 떠올리거나,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 혹은 표현 방법이 적절한지 부분적으로 생각해 보며 읽는다. 교사나 동료의 도움을 받아 읽기 목적에 따라 자신의 읽기 방법을 선택하며,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된 글을 읽는 태도를 보인다. ³⁾	① 읽기가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부분적으로 이해한다.	• 읽기는 독자가 글을 통하여 필자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임을 부분적으로 안다.
		② 기초적인 수준에서 자신의 삶과 연결 지어 글을 읽거나 필자의 관점이 적절한지 부분적으로 판단하며 글을 읽는다.	• 교사의 도움이나 동료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삶과 관련 지어 글을 읽는다. • 교사의 도움이나 동료와의 대화를 통해 매체 자료를 읽고 필자의 생각이 적절한지 부분적으로 판단한다.
		③ 교사나 동료의 도움을 받아 읽기 목적에 따라 자신의 읽기 방법을 선택하며,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된 글을 읽는 태도를 보인다.	•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된 글을 찾아 읽는 태도를 보인다.

3)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고등학교 국어과)에서 재진술 사항은 밑줄 표시하였다.

읽기 영역에서 새로 설정한 성취수준 'E'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표 2>와 같이 3개의 '하위 항목'으로 나누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4개의 활동 또는 근거('수행 활동/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하위 항목은 지식 이해 범주에 해당하는데, '읽기가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부분적으로 이해한다.'라는 진술이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의미를 한정하거나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교육과정 내용에 근거하여 '사회적 상호 작용'을 '독자가 글을 통하여 필자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으로 구체화하고, '이해한다'를 '안다'로 수정하여 최소 학업 성취수준의 판단 근거로 삼고자 하였다.

두 번째 하위 항목은 기능 범주에 해당하는데, 일반적 특성의 '삶의 문제와 연결 짓기', '대안 모색해 보기',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 판단하기' 등의 활동을 단순 나열하기보다는 유사한 범주의 읽기 활동끼리 묶어 분류하고 두 개의 수행 활동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교육과정과 그 해설에 근거하여 '삶의 문제와 연결 짓기', '대안 모색해 보기' 활동을 '창의적 읽기 활동'의 범주로 분류하고 그 중 학생들이 보다 수월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초적인 수준에서 자신의 삶과 연결 지어 글을 읽는다'를 하위 항목으로 하여 첫 번째 수행 활동을 제시하였다. 이때 '기초적인 수준'을 수행하는 데 최소 학업 성취수준의 경우 '교사의 도움이나 동료와의 대화를 통해'라는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두 번째 수행 활동은 '기초적인 수준에서 필자의 관점이 적절한지 부분적으로 판단하며 글을 읽는다'라는 하위 항목은 '비판적 읽기 활동' 범주에 해당하는데, 이를 최소 학업 성취수준의 근거로 제시할 때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적절성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를 '필자의 생각' 정도로 완화하고 '표현 방법의 적절성 판단'은 제외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경우 '기초적인 수준'에서 수행할 때 '교사의 도움이나 동료와의 대화를 통해'라는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세 번째 하위 항목은 태도 범주에 해당하는데, '읽기 목적에 따라 자신의 읽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된 글'을 찾아 읽는 과정에서 체득할 수 있는 것이므로 두 과정을 하나의 항목, 즉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된 글을 찾아 읽는 태도'로 압축하여 제시하였다.

(3) 쓰기 영역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고등학교 국어과)에서 제시한 쓰기 영역 성취기준의 평가 기준 ‘하’를 재검토한 결과, 평가기준의 기술이 적절하여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고등학교 국어과)의 쓰기 영역 성취수준 ‘E’를 재검토한 결과, 5개의 성취기준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기술 내용에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단, 쓰기 과정을 점검하여 글을 고쳐 쓰는 것과 글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각각 기능과 태도라는 별도의 범주에 해당함을 고려하여 한 문장으로 진술되어 있는 이들 내용을 문장을 분리하여 진술하였다. 이에 ‘고쳐 쓰며 글이’ 문장을 분리하여 ‘고쳐 쓴다. 또한 글이’로 수정하였다. 또한 글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는 것이 태도 범주에 속함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일부 고려하여 글을 쓴다.’를 ‘일부 고려하여 글을 쓰는 태도를 지닌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쓰기 영역에서 새로 설정한 성취수준 ‘E’에 대해 다시 ‘하위 항목’으로 나누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활동 또는 근거(‘수행 활동/판단 근거’)의 세부 내용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수행 활동/판단 근거는 교사의 현장 적합성 검토와 전문가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 <표 3>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쓰기 영역의 최소 학업 성취수준(E, 40% 이상 60% 미만) 진술문이다.

표 3 | 공통 과목 <국어> 쓰기 영역의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

영역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수행 활동 / 판단 근거
쓰기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부분적으로 이해하여,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 쓰기 맥락을 부분적으로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조정하고 글의 내용과 형식을 일부 고쳐 쓴다. 또한 글이 독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일부 고려하여 글을 쓰는 태도를 지닌다. ⁴⁾	①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부분적으로 이해한다.	• 쓰기는 필자가 글을 통하여 독자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임을 부분적으로 안다.
		② 설득하는 글이나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쓰면서, 기초적인 수준에서 글을 고쳐 쓴다.	• 교사의 도움이나 동료와의 대화를 통해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짧은 글이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짧은 글을 쓴다. • 글의 목적, 주제, 독자 중 일부를 고려하여 기초적인 수준에서 글의 내용이나 표현을 고쳐 쓴다.
		③ 글이 독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일부 고려하여 글을 쓰는 태도를 지닌다.	• 자신의 글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글을 쓰는 태도를 보인다.

4)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고등학교 국어과)에서 재진술 사항은 밑줄 표시하였다.

쓰기 영역에서 새로 설정한 성취수준 'E'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표 3>과 같이 3개의 '하위 항목'으로 나누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4개의 활동 또는 근거('수행 활동/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하위 항목은 지식 이해에 해당하는데,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은 다소 추상적인 진술이어서 이를 기초로 교사가 학생의 지식 이해 수준을 판단하기에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과 그 해설을 토대로 전문가 패널의 논의 결과, '쓰기는 자가 글을 통하여 독자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임을 학생이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하면 어느 정도 최소 학업 성취수준을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두 번째 하위 항목은 기능 범주에 해당하는데, '설득하는 글이나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쓰면서, 기초적인 수준에서 글을 고쳐 쓴다.'라는 진술로는 성취수준의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워서 이 중 일부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설득하는 글이나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쓰는 것과 관련된 수행 활동과 '기초적인 수준에서 글을 고쳐 쓴다.'는 수행 활동을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첫 번째 수행 활동은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짧은 글'이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짧은 글' 중 하나를 '교사의 도움이나 동료와의 대화를 통해' 작성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최소 학업 성취수준을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두 번째 수행 활동에서 '기초적인 수준'에서 글을 고쳐 쓰는 것이 무엇인지 이를 어느 정도 제약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목적, 주제, 독자 등 일부를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하고, '글의 내용이나 표현' 중 일부를 '기초적인 수준'에서 고쳐 쓸 수 있다면 최소 학업 성취수준을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세 번째 하위 항목은 태도 범주에 해당하는데, '글이 독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다소 고차적인 국어 능력을 담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자신의 글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으로 낮추어 설정하였다.

(4) 문법 영역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고등학교 국어과)에서 제시된 문법 영역 성취기준의 평가기준 '하'를 재검토한 결과, 평가기준의 기술이 적절하여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고등학교 국어과)의 문법 영역 성취수준 'E'를 재검토한 결과, 5개의 성취기준을 3가지로 종합하여 제시하고 있었다. 단, '주요 변동 현상'이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 제시된 내용보다 포괄적이어서 이를 '주요 음운 변동 현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

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국어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주요 오류’가 ‘국어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오류’와 유사한 의미라고 판단하여 진술을 수정하였으며, ‘주요 오류에 대해 올바른 표기와 발음을 알고’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표기에 한정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오류에 대해 정확한 표기 방법을 알고’로 수정하였다. ‘국어 사랑과 발전에 관심을 가진다’는 상위 성취수준인 D에 제시되어 있지 않음을 고려하여 이를 삭제하고 대신 해당 성취기준이 문법 영역 태도 범주에 해당하는 내용임을 고려하여 ‘올바르게 사용하려는 태도’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문법 영역에서 새로 설정한 성취수준 ‘E’에 대해 다시 ‘하위 항목’으로 나누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활동 또는 근거(‘수행 활동/판단 근거’)의 세부 내용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수행 활동/판단 근거는 교사의 현장 적합성 검토와 전문가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 <표 4>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쓰기 영역의 최소 학업 성취수준(E, 40% 이상 60% 미만) 진술문이다.

표 4 공통 과목 <국어> 문법 영역의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

영역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수행 활동 / 판단 근거
문법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가 차이가 있음을 부분적으로 알고 주요 음운 변동 현상과 주요 문법 요소의 특성을 이해한다. 또한 국어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오류에 대해 정확한 표기 방법을 알고,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⁵⁾	①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가 차이가 있음을 부분적으로 안다.	• 교사가 제공하는 국어 자료에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일부 찾는다.
		② 국어의 주요 음운 변동 현상과 주요 문법 요소의 특성을 이해한다.	• 교사가 제공하는 국어 자료에서 주요 음운 변동 현상과 주요 문법 요소의 특성을 대략적으로 파악한다.
		③ 국어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주요 오류에 대해 올바른 표기와 발음을 안다.	•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오류 중 일부를 수정하여 올바르게 사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문법 영역에서 새로 설정한 성취수준 ‘E’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표 4>와 같이 3개의 ‘하위 항목’으로 나누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3개의 활동 또는 근거(‘수행 활동/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5)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고등학교 국어과)에서 재진술 사항은 밑줄 표시하였다.

첫 번째 하위 항목은 지식 이해에 해당하는데,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는 역사적 실체로서 국어의 변화를 이해하고 탐구할 수 있는지를 의도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 실체로서 국어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학습 범위가 포괄적이며 학습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이해를 요구하여 최소 학업 성취수준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과 그 해설을 토대로 전문가 패널의 논의 결과, ‘교사가 제공하는 국어 자료에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일부 찾는’ 활동을 통해 국어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최소 학업 성취수준을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두 번째 하위 항목은 지식의 탐구 범주에 해당하는데, ‘주요 음운 변동 현상과 주요 문법 요소의 특성’을 대략적으로 이해하여도 최소 학업 성취수준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교육과정에서 음운 변동에 해당하는 학습 요소로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되기, 구개음화, 두음 법칙, 모음 탈락, 반모음 첨가, 거센소리되기를, 문법 요소에 해당하는 학습 요소로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표현, 인용 표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교사가 제공하는 국어 자료에서’라는 범위 한정을 통해 교사가 학생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세 번째 하위 항목은 지식 이해와 태도 범주를 결합하여 제시하였는데, ‘국어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오류에 대해 올바른 표기와 발음’을 알고 사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최소 학업 성취수준을 염두에 두었을 때에 정확한 표기와 발음을 알지 못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오류 중 일부를 수정하여 바르게 사용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최소 학업 성취수준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적절한 수행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5) 문학 영역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고등학교 국어과)에서 제시된 문학 영역 성취기준의 평가 기준 ‘하’를 재검토한 결과, 평가기준의 기술이 적정하여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고등학교 국어과)의 문학 영역 성취수준 ‘E’를 재검토한 결과, 5개의 성취기준을 3가지로 종합하여 일반적 특성을 구성하였고, 기술 내용에 균형을 갖추고 있었다. 이에 성취수준 ‘E’의 일반적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문학 영역에서 새로 설정한 성취수준 ‘E’에 대해 다시 ‘하위 항목’으로 나누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활동 또는 근거(‘수행 활동/판단 근거’)의 세부 내용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수행 활동

/판단 근거는 교사의 현장 적합성 검토와 전문가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 <표 5>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쓰기 영역의 최소 학업 성취수준(E, 40% 이상 60% 미만) 진술문이다.

표 5 | 공통 과목 <국어> 문학 영역의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

영역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수행 활동 / 판단 근거
문학	기초적 수준에서 문학 작품의 구성 요소들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을 한다. 갈래에 따른 형상화 방법의 차이를 단편적 수준으로 이해한다. 문학사의 흐름을 기초적 수준으로 이해하고, 한국 문학의 대표작을 감상한다. 문학의 수용과 생산에서 사회·문화적 가치를 떠올리고, 교사의 도움을 바탕으로 작품의 해석과 평가에 자신의 기준을 적용한다. ⁶⁾	① 기초적 수준에서 문학 작품의 구성 요소들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을 한다.	•문학 작품은 내용, 형식, 표현 등 여러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부분적으로 안다.
		② 갈래에 따른 형상화 방법의 차이와 한국 문학사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한국 문학의 대표작을 감상한다.	•서정, 서사, 극, 교술 갈래의 차이를 기초적 수준에서 이해하고 교사가 제공하는 한국 문학의 대표작을 감상한다.
		③ 문학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가치를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교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관점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태도를 지닌다.	•교사의 도움이나 동료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관점으로 작품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문학 영역에서 새로 설정한 성취수준 ‘E’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표 5>와 같이 3개의 ‘하위 항목’으로 나누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3개의 활동 또는 근거(‘수행 활동/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하위 항목은 지식 이해 범주에 해당하는데, 기초적 수준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문학 작품의 구성 요소들’이 다소 광범위하여 내용을 한정할 필요가 있었고 ‘문학 활동’이라는 진술도 추상적이어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였다. 전문가 패널의 논의와 기존 교육과정 및 현행 교육과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문학 작품의 구성 요소들’을 ‘내용, 형식, 표현 등 여러 요소’로 수정하였다. 이는 문학 작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요소들을 제시하되 ‘여러 요소’라는 여지를 남겨 두어 판단 근거는 구체화하고 수행 활동의 다양성은 열어두고자 함이다. 또한 지식 이해 범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을 한다’라는 진술은 ‘~을 부분적으로 안다’로 수준을 낮추어 설정하였다.

6)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고등학교 국어과)에서 재진술 사항은 밑줄 표시하였다.

두 번째 하위 항목은 기능 범주에 해당하는데, 비록 단편적이고 기초적인 수준이라고는 하나, ‘갈래에 따른 형상화 방법의 차이’, ‘문학사의 흐름’ 대한 이해는 최소 학업 성취수준 학생들이 학습하기에는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최소 학업 성취수준에 적합한 진술로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갈래에 따른 형상화 방법의 차이’를 ‘서정, 서사, 극, 교술 갈래의 차이’로 한정하였다. 또한 문학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한국 문학의 대표작을 잘 감상하기 위함이라는 교육과정의 해설에 따라 해당 진술을 ‘교사가 제공하는 한국 문학의 대표작을 감상한다’로 한정하여 설정하였다.

세 번째 하위 항목은 태도 범주에 해당하는데, ‘문학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한다는 성취수준이 다소 높은 수준이라는 논의가 있었고 해당 활동은 ‘자신의 관점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태도 범주의 최소 학업 성취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교사의 도움이나 동료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관점으로 작품을 해석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로 설정하였다.

나. 일반 선택 과목 <독서>

일반 선택 과목 <독서>는 독서의 본질, 독서의 방법, 독서의 분야, 독서의 태도의 총 4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서의 본질 영역은 2개 성취기준, 독서의 방법 영역은 5개 성취기준, 독서의 분야 영역은 6개 성취기준, 독서의 태도 영역은 2개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총 15개의 성취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개정 시 이러한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15개 성취기준의 평가기준을 개발하였는데, 학기말의 최종 성취수준은 <국어> 과목처럼 영역별로 제시하지 않고 모든 영역을 한데 모아 '과목 성취수준'으로 함께 진술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고등학교 국어과)에서 제시된 독서 과목의 영역별 성취기준의 평가기준 '하'를 재검토한 결과, 평가기준의 기술이 적정하여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고등학교 국어과)에서 제시된 선택 과목 <독서>의 과목 성취수준 E는 '본질, 방법, 분야, 태도'의 4가지 영역을 종합하여 1개의 과목 성취수준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과목 성취수준 'E'의 일반적 특성을 검토한 결과, 대체로 적정하여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단, 일부 표현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첫째, 명료한 표현을 위하여, '좋은 글로 제시된 글을 선택하며'를 '좋은 글을 선택하며'로 수정하였다. 둘째, 두 번째 문장의 진술이 '~ 글을 읽으며, ~ 이해하며 글을 읽는다.'로 주어에 대한 서술어 호응이 중복되어 다소 어색하게 읽힐 수 있다. 이에 '관심 있는 분야의 글을 읽거나, 시대와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매체의 유형적 특성이 드러난 글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며 읽는다.'로 수정하였다. 원래 교육과정상에도 '관심 있는 분야의 글(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분야의 글)'과 '시대, 지역, 매체의 글'이 대등적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총 6개의 성취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취수준 E의 진술에서도 3개씩 합쳐서 대등적으로 기술하였다. 만약 수정하지 않게 되면, '관심 있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시대, 지역, 매체 특성을 각각 파악하는 것'처럼 오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분야의 글이 시대·지역별 특성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독서 과목에서 새로 설정한 성취수준 'E'에 대해 다시 '하위 항목'으로 나누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활동 또는 근거('수행 활동/판단 근거')의 세부 내용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수행 활동/판단 근거는 교사의 현장 적합성 검토와 전문가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 <표 6>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독서 과목의 최소 학업 성취수준(E, 40% 이상 60% 미만) 진술문이다.

표 6 일반 선택 과목 <독서>의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

과목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수행 활동 / 판단 근거
독서	교사나 동료의 도움을 받아 좋은 글을 선택하며, 독서의 맥락과 글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고려하여 읽는다. 관심 있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시대와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매체의 유형과 특성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며 글을 읽는다. 기초적인 수준에서 독서 활동을 하며 바람직한 독서 문화 형성에 부분적으로 참여한다.	① 교사나 동료의 도움을 받아 좋은 글을 선택하여 읽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의 도움이나 동료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독서 목적에 맞거나 가치 있는 글을 선택하여 읽는다. 교사의 도움이나 동료와의 대화를 통해 동일한 화제를 다룬 다양한 글을 찾아 읽는다.
		② 독서의 맥락과 글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고려하여 글에 드러난 정보를 대략 파악하며 읽고 드러나지 않은 정보는 일부 추론하며 읽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에 드러난 중심 내용, 글의 흐름 등을 대략 파악하며 읽는다. 교사의 도움이나 동료와의 대화를 통해 글에 드러나지 않은 필자의 의도, 글의 목적이나 주제, 생략된 정보 등을 일부 추론하며 읽는다.
		③ 독서의 맥락과 글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고려하여 글에서 감동적인 부분을 찾아 읽거나 글의 내용을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읽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에서 공감이 되는 부분, 교훈이나 즐거움을 주는 부분을 찾아 읽는다. 교사의 도움이나 동료와의 대화를 통해 글에서 자신의 일상생활이나 주변의 문제와 관련 되는 부분을 찾아 읽는다.
		④ 관심 있는 분야의 글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며 읽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의 도움이나 동료와의 대화를 통해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분야의 글 중에서 관심 있는 글을 선택하여 부분적으로 이해하며 읽는다. 관심 있는 분야의 글을 읽고 자신이 부분적으로 이해한 내용에 대해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
		⑤ 시대·지역·매체의 특성이 반영된 글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며 읽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의 도움이나 동료와의 대화를 통해 시대나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글을 선택하여 부분적으로 이해하며 읽는다. 여러 가지 매체의 유형과 특성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며 매체 자료를 읽는다.
		⑥ 기초적인 수준에서 독서 활동을 하며 바람직한 독서 문화 형성에 부분적으로 참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적인 수준에서 독서 계획을 세워 독서 활동을 수행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자신의 독서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선택 과목 <독서>의 성취수준 'E'에 대해 전문가 패널의 논의와 기존 교육과정 및 현행 교육과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표 6>과 같이 총 6개의 '하위 항목'으로 나누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12개의 활동 또는 근거('수행 활동/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6개의 하위 항목은 순서대로, 독서의 4영역을 좀 더 확장하여, '독서의 본질', '독서의 방법(1)', '독서의 방법(2)', '독서의 분야(1)', '독서의 분야(2)', '독서의 태도'의 6개의 하위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즉, 독해 기능을 의미하는 독서의 '방법' 범주와 글의 유형을 의미하는 독서의 '분야' 범주는 각기 하위에 속하는 성취기준의 수가 많기 때문에 각각 2개씩의 하위 항목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구체적인 구성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하위 항목은 '본질' 범주에 해당한다. 이 범주는 '좋은 글을 선택하는 것'과 '주제 통합적 독서 방법에 대한 이해'의 2가지 성취기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주제 통합적 독서기초적 수준에서 수행될 수 있는 내용으로는 다소 어렵다는 판단 하에 '좋은 글의 요건을 알고 이를 선택하여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최소 학업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이를 중심으로 하위 항목을 설정하였다. 또한 좋은 글 혹은 양서 선택에서 E 수준의 학습자에게는 글이나 책에 대한 정보 부족, 좋은 글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도움이나 동료와의 대화를 통해'를 추가하여 하위 항목을 위와 같이 표현하였다. 이를 판단할 수 있는 활동 또는 근거는 포괄적으로 진술한 '좋은 글'을 구체화하여 '자신의 독서 목적에 맞거나 가치 있는 글'과 '동일한 화제를 다룬 다양한 글'과 같이 학생의 수행성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대상을 나누어 2가지 활동으로 제시하였다.

두 번째 하위 항목은 '방법(1)' 범주에 해당한다. 교육과정에서 독서의 방법은 독해 기능 혹은 독서의 전략 5가지를 성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적 독해, 추론적 독해, 비판적 독해, 감상적 독해, 창의적 독해의 5가지 독해 기능에 기반하여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비판적 독해가 최소 학업 수준의 학생에게는 다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제외하고, 사실적 독해와 추론적 독해를 묶어 "독서의 맥락과 글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고려하여 글에 드러난 정보를 대략 파악하며 읽고 드러나지 않은 정보는 일부 추론하며 읽는다."와 같이 하나의 하위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이때 일반적 특성의 진술인 '독서의 맥락과 글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고려하여'를 그대로 따르되, 하위 항목 기술에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내용을 암시할 수 있도록 핵심어를 드러내어 상세하게 표현하였다. 즉 '글에 드러난 정보를 대략 파악하며'는 사실적 독해를, '드러나지 않은 정보는 일부 추론하며'는 추론적 독해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이에 따라 이러한 하위 항목을 판단할 수 있는 활동 또는 근거는 사실적 독해와 추론적 독해에 해당하는 하위 전략들의 핵심어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2개로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각각 기술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수행 활동을 하거나 교사가

최소 학업 달성의 근거로 판단하는 데에 용이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그 외 사실적 독해에 비해 추론적 독해가 좀 더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여 첫 번째 수행 활동 및 판단 근거인 사실적 독해에는 ‘대략’을, 두 번째 수행 활동 및 판단 근거인 추론적 독해에는 ‘교사의 도움이나 동료와의 대화를 통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교사의 지도나 안내에 의한 읽기 활동으로도 충분함을 시사하였다.

세 번째 하위 항목은 ‘방법(2)’ 범주에 해당한다. 진술한 바와 같이, 독해 기능 5가지 중에서 ‘감상적 독해’와 ‘창의적 독해’를 묶어 “독서의 맥락과 글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고려하여 글에서 감동적인 부분을 찾아 읽거나 글의 내용을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읽는다.”와 같이 하나의 하위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이때 일반적 특성의 진술인 ‘독서의 맥락과 글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고려하여’는 그대로 따르고, 하위 항목 기술에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내용의 핵심어를 드러내어 상세하게 표현하였다. 즉 ‘감동적인 부분을 찾아 읽거나’는 감상적 독해를,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읽는다’는 창의적 독해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이에 따라 이러한 하위 항목을 판단할 수 있는 활동 또는 근거는 감상적 독해와 창의적 독해에 해당하는 하위 전략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한 단계 낮추어 기술하였다. 다만, 감상적 독해에 비해 창의적 독해가 좀 더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여 창의적 독해에는 ‘교사의 도움이나 동료와의 대화를 통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교사의 지도나 안내에 의한 읽기 활동으로도 충분함을 시사하고, ‘일상생활, 주변의 문제’ 등으로 바꾸어 진술 수준을 한 단계 낮추어 최소 학업 정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네 번째 하위 항목은 ‘분야(1)’ 범주에 해당한다.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독서의 방법(기능)을 익히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독서 맥락에 접해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직접 읽고 독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범주를 설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취지를 이해하여 네 번째 하위 항목과 다섯 번째 하위 항목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스스로 선정하여 읽고 독서 경험을 넓히는 것으로 최소 학업 달성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에서 독서의 대상이 되는 글의 분야는 총 6가지를 교육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즉 ‘인문·예술 분야의 글, 사회·문화 분야의 글, 과학·기술 분야의 글, 시대의 특성을 반영한 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글, 매체의 특성을 반영한 글’이 그것이다. 이 분야를 대별하여 2개의 하위 항목으로 구성하였는데,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한데 묶어 ‘관심 있는 분야의 글’로 표현하여 항목을 만들고, ‘시대, 지역, 매체의 특성이 반영된 글’로 나머지 항목을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네 번째 항목은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분야의 글 읽기’에 해당하는 데, 이를 ‘관심 있는 분야의 글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며 읽는다’로 한 단계 수준을 낮추어

표현하였다. 이러한 하위 항목을 판단할 수 있는 활동 또는 근거에서는 이들 분야가 어떤 것 들인지를 보여주는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분야의 글’를 노출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하였으며, ‘교사의 도움이나 동료와의 대화를 통해’, ‘~ 글 중에서 관심 있는 분야의 글을 선택’하여 읽거나 ‘부분적으로 이해한 내용에 대해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만 하더라도 최소 학업 달성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수준을 한 단계 낮추어 기술하였다. 여기서 학생이 선택하여 읽은 글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활동도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은 독서 경험으로 간주하여 판단 근거로 추가 설정하였다.

다섯 번째 하위 항목은 ‘분야(2)’ 범주에 해당한다. 이 항목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글의 분야 총 6가지 중에서 ‘시대의 특성을 반영한 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글, 매체의 특성을 반영한 글’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의 내용을 항목화한 것으로, 이를 ‘시대, 지역, 매체의 특성이 반영된 글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며 읽는다’로 한 단계 수준을 낮추어 표현하였다. 이러한 하위 항목을 판단할 수 있는 활동 또는 근거에서는 이들 분야의 내용 중 ‘시대의 특성이 반영된 글’과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글’, 2가지 분야를 묶어 ‘다양한 시대나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글을 ~ 읽는다’로 표현하였고, 나머지 분야인 ‘매체의 특성이 반영된 글’은 ‘여러 가지 매체의 유형과 특성을 ~ 매체 자료를 찾아 읽는다’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시대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글은 그 글이 쓰인 사회문화적 맥락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 자료보다는 좀 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교사의 도움이나 동료와의 대화를 통해’ 읽을 수 있도록 한 단계 낮추어 기술하였다.

여섯 번째 하위 항목은 ‘태도’ 범주에 해당한다. 이 범주에서는 ‘독서 계획과 실천’과 ‘독서 활동에의 참여’의 2가지 성취기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독서에 대한 장기 계획을 짜고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기초적 수준에서 수행될 수 있는 내용으로는 다소 어렵다는 판단에 ‘독서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최소 학업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이를 중심으로 “기초적인 수준에서 독서 활동을 하며 바람직한 독서 문화 형성에 부분적으로 참여한다.”로 하위 항목을 기술하였다. 다만, 이러한 하위 항목을 판단하는 활동 또는 근거에서는 각각의 성취기준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2가지로 제시하였다. ‘기초적인 수준에서 독서 계획’을 세우거나 ‘독서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독서 문화 형성에 이바지하려는 최소 학업 달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